

# 한국의 실리콘밸리 구축에 투자열기 후끈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려는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에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와 인천광역시가 개최한 미디어밸리 사업 설명회에 현대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600여 국내기업과 휴렛팩커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SAP,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등의 외국회사 관계자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송도 미디어밸리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폈다.

특히 인텔, 휴렛팩커드, SAP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3개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사와 입주문제를 협의중인 외국의 정보통신 기업도 15개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올해말 1,300만평의 송도 정보화 신도시 중 176만평의 미디어밸리 부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며 현재 미국 컨설팅 업체인 아더리틀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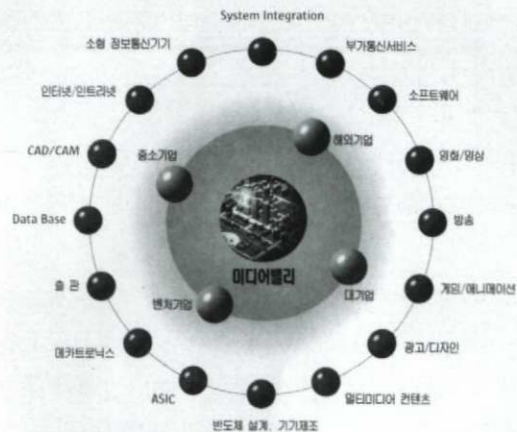
인천시 관계자는 미디어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디어밸리 입지인 송도 정보화 신도시에 대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2001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밸리를 첨단 정보통신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여기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과 벤처기업 전용단지도 조성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밸리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멀티미디어폴리시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국내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권했다. 추진위원회와 인천시는 이달 중

미국 새너제이와 일본 동경에서 현지의 정보통신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설명회를 각각 개최해 총 200여개의 국내의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미디어밸리의 단지 구성 및 유치업종은 첨단 정보지식 산업단지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의 자족도시가 되도록 꾸며진다. 첨단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전용지구를 비롯해 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질 연구·학습지구, 벤처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벤처빌딩, 주거·교육·문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선다.

유치대상 기업은 SI를 비롯해 부가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영화·영상, 방송, 게임·애니메이션, 광고·디자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반도체 설계, 기계제조, 출판, 데이터베이스, CAD·CAM, 인터넷·인트라넷, 소형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부문의 업체들이다. <최진기 기자>



(그림) 미디어밸리에 입주가 예상되는 정보통신 관련 업종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모습